

제주인의 의식

김 항 원

1.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내포하는 정신작용을 가리킨다. 낫솔라스(Natsoulas)에 의하면 의식은, 첫째 대상 세계나 사물에 대한 단순한 감각의 수준에서부터 이를 지각하는 인지 작용이며, 둘째 개인의 인상과 감정의 종합이고, 셋째로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판단과 신념체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로 의식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면, 제주인의 의식은 제주인의 태도, 정신, 신념체계, 가치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제주인의 의식을 이와같이 넓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식과 현재의의식은 혼재해 있기 때문에 나누기는 힘들지만, 제주인의 의식을 전통적인 의식, 현재의 의식, 의식의 변화, 미래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의식으로 나누어서 변화를 유추해 보기로 한다.

2. 전통적인 의식

제주인의 전통적인 의식을 제주도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의식에 한정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가족제도, 지역공동체, 가치관과 사회적 성격에 관련된 의식으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기술하기로 한다.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징은 철저한 분가주의, 강한 독립 생활 의지,

핵가족, 그리고 형제간의 재산의 균분상속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척박한 토질과 특수한 자연환경 때문에 흉년이 자주 들었으며, 토지 생산성이 낮고 가구당 경지 면적이 영세성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 모두가 근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장남이라도 결혼하면 분가를 시켰으며, 그 결과 분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을 정도로 분가주의 의식이 강하였다. 그리고 노부모는 노동을 할 수 있는 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생계를 하려고 하며, 재산 상속도 아들들에게 균분상속을 하려는 의식이 강하였다.

제주도는 농경사회이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공동체 사회로서 공동체의식이 강했다. 예를 들어보면 향회, 연자매, 용수의 공동사용과 관리, 수눌음, 향약, 계, 해변 공동관리와 마을공동목장제가 있다. 그리고 제주인들은 경조사 등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며칠씩 일을 하면서 서로 도와주며, 제사를 지낸 뒤에는 반드시 동네의 이웃들과 조금씩이라도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또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 삼촌이라고 부르고 아랫사람들에게는 조카라고 부르면서 살아왔다.

제주인의 가치관과 관련된 의식 중에 두드러진 것은 자립심과 독립심, 조냥(절약)정신, 강인과 근면, 상부상조 등이다. 자립심과 독립심은 노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며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제주인들은 1960년대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1개월 이상 먹을 식량을 비축하고 매우 절약하면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생활이 몸에 베어서 조냥정신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제주인들의 강인함과 근면성은 대단하다.

특히 여자들은 40여년 전까지만 해도 농어촌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전에 바다에 가서 밭에 거름으로 넣을 모자반, 파래, 감

태 등을 채취해다 놓았다. 그 후에 식사를 하고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물때(썰물)가 되면 바다에 가서 잠수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물허벅으로 물을 길어 와서 저녁을 하는 등 하루 종일 쉴 사이가 없었다. 이러한 생활은 강인한 정신을 키워주었으며 밭일 정도는 별로 힘들지 않게 생각되었고 오히려 일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거의 매일 같이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상부상조 의식은 농촌에서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집 일 같이 며칠씩이라도 서로 도와주는 것과 ‘수눔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수눔음’은 ‘수눔다’의 명사형으로 농어촌에서 자기집 일이 바쁘지 않을 때 다른 집의 일을 해주고 자기 집의 일을 해야할 때는 도움을 받아서 일하는 상부상조의 협조체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적 부정적인 의식으로 배타심과 열등의식을 들 수 있다. 제주인들은 외지인에 대하여 다소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며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촌에서는 외지인에게 집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 하거나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등 배타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제주도의 역사와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천여년 동안 중앙에서 과견되는 탐관오리의 수탈을 당해왔으며, 육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 등 제주인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제주도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변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제주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열등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제주도는 40여년 전만 해도 남녀노소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 살 수

있었으며, 빈부의 차가 별로 없는 평등사회였다. 즉 노동의 평등, 남녀의 평등, 복식의 평등, 재산상속의 평등 및 가난의 평등한 사회였다. 노동 면에서 보면, 농촌에서 부자는 일부자라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해야 했으며 의식주나 생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제주도 여성들의 노동량이 육지에 비해서 상당히 많으며 남성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다. 또한 경제적 면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경제적 능력도 있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사회인 것 같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오는 가운데 평등의식이 형성되어서 유지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3. 현재의 의식

현재의 의식은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김항원, 1990)와 “제주인의 의식조사와 제주정신 정립을 위한 연구”(김항원·고성준·김진영·장근형, 1996)의 결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재의 긍정적인 의식을 가족제도, 공동체 사회, 가치관, 사회적 성격과 관련해서 기술하기로 한다.

가족제도와 관련해서 분가주의 의식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분가해서 살기를 원하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장남이 반드시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되며 재산상속도 아들들에게 균분상속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독립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균분상속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동체 의식을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가까운 이웃 사람을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호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

도 농촌의 '수눌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인들은 협동심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농촌에서는 수눌어서 일을 하는 풍습이 많이 남아 있고 농촌 일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웃의 경조사에는 서로 도우며 자기 일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치관과 관련된 의식을 보면, 조낭정신은 제주사회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제주인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주인들은 생활력이 강하며 검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도 농촌에서 여자들의 강한 생활력과 검소한 생활 및 노부모들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독립심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겠다. 또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제주인들의 능력이 육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육지 사람들과 일을 할 때도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능력과 연관지어 볼 때 자긍심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등의식을 보면, 제주사회에서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는 72.7%가 비교적 적다고 보고 있지만, 그간의 개발과정에서 반사적으로 주어진 이른바 '개발이득'을 얻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이들의 부는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평등관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똑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70.2%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90.6%가 동일한 학력과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남녀 차별없이 똑 같은 대우를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남녀평등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많은 층보다는 젊은 층이, 그리고 다른 조사대상자보다

는 대학생 집단이 더 ‘그렇다’라는 긍정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전문직업 집단(도내)에서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의식을, 사회의식에서는 연고주의, 법의식과 불신의식, 원로와 인물 부재에 대한 의식, 가정의례에서의 문제점, 현재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 등의 순서로, 그리고 문화와 생활의식에서는 친구간 풍습, 배타심, 열등의식과 편가르기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고주의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제주인들은 관공서 일은 아는 사람을 통하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제주 사람들이 연줄을 찾아 일을 처리하는 면이 강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승진이나 성공을 위해 아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66.8%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연령별로는 30대이하층에,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 제주도 거주자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법의식과 불신의식에서, 법대로 하다가는 손해본다(57.6%), 친구나 친척이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고발하겠다(60.3%), 그리고 요즘 같아서는 누구를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다(66.5%)는 반응이 66.5%이다. 이것은 실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는 법적 소외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법규범이나 타인에 대한 불신의식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로와 인물 부재에 대한 의식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제주지역에서는 진정으로 사표가 될만한 원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제주의 사회적 분위기가 인물을 키우는 데 관대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KBS 제주지방총국에서의 제주인의 의식에 대한 세미나(1996. 9. 20)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제주도에 원로들은 있는

데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가정의례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제주사회에서 가정의례가 매우 허례 허식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접부조,’ ‘과다한 조화 진열,’ ‘과다한 음식물 제공,’ ‘답례품 주고받기,’ ‘소기 종일 봉제’ 등 가정의례 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이기주의,’ ‘파벌, 학연, 지역주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주사회에서 타파되어야 할 폐습으로는 ‘허례허식,’ ‘사치풍조,’ ‘불친절,’ ‘교통질서 안 지키는 것’ 등의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허례허식’과 ‘사치풍조’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와 생활의식에서 부정적인 의식을 보면, 제주인들은 신구간 풍습이 있어 생활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신구간을 지키며 이사가거나 집을 고칠 때 날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신구간이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신구간을 지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신구간 문화가 사회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배타심의 경우, 외지 사람에게 경계심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1/3 수준에 불과하지만 외지인에 대하여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은 45.2%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제주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자는 64.8%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배타심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타인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배타심의 정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보면, 자신과 관련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경계심과 거리감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

주인 일반의 배타심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받은 상층일수록 제주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열등의식과 편가르기의 경우, 응답자의 2/3 정도가 제주도 사람들이 편가르기를 잘하는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63.6%는 제주도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열등의식을 제주인의 의식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주관적 상층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간층의 약 2/3는 육지사람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4. 의식의 변화

제주인의 의식의 변화를 전통적인 의식과 현재의 의식을 비교하여 대체적인 변화의 추세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가족제도와 관련된 의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분가주의 의식은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유지되고 있어서 50대 이상은 매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대 이하는 반 정도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학교 교육의 영향이 큰 것 같으며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의식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응답자의 2/3 이상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독립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노부모의 강한 독립심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응답자의 3/4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균분상속 의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체의식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40대 이상이고 국졸 이하이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지역에서는 공동체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공동체의식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도 농어촌에서는 이웃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일 같이 도와주고 있으며, 이웃의 가까운 사람들을 삼촌과 조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계를 들어서 상부상조하고 있고 밭일의 많은 부분을 수놓어서 하고 있으며, 해변 마을에서는 툇이나 우뭇가사리 등의 채취와 판매를 마을별로 공동관리를 하고 있다.

가치관과 관련해서 보면, 제주인들의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강한 자립심과 독립심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낭정신은 제주사회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제주사회에서 타파해야 할 폐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허례허식과 사치풍조를 들고 있다. 이것과 관련시켜 본다면, 조낭정신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주인의 강인함과 검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며 검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소한 생활에 대한 인식은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저학력층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치풍조를 고려한다면, 젊은 층에서는 검소한 생활의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상부상조 의식은 시지역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으며, 과거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어촌에서는 아직도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지적되는 배타심과 열등의식을 보면, 배타심의 경우 자신은 외지인에 경계심을 가지거나 거리감을 느낀다는 평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 다른 제주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인식하는 데 대해서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과거에 고립된 사회에서 제주인들이 가졌던 외지인에 대한 배타심은 많이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정도의 배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열등의식에 대해서 응답자의 63.6%가 제주도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응답자들이 제주인의 능력이 육지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으며, 육지사람들과 일을 할 때 당당한 자세를 취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살기 어려운 변방의 제주도에서 70년대 이후는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의 발전에 힘입어 살기 좋은 제주도가 된 데 기인한 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에 가졌던 열등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이며 제주인의 부정적인 의식으로 열등의식을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인의 상당히 높은 정체성을 보면 분명해진다.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제주도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있으며(84.9%), 육지에 가서도 제주도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83.9%). 또한 응답자의 60% 정도는 자녀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고 있으며, 2/3 정도는 본인들도 제주도에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등의식의 경우, 제주도의 평등 사회적인 성격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주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비교적 적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녀평등과 재산 상속의 평등의식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평등의식이 많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미래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의식

제주인의 의식 중에서 긍정적인 의식은 계승·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의식은 줄이거나 없애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제주인의 의식은 현재의 긍정적인 의식, 그리고 민주

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와 관광지로서 요청되는 의식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의식은 강한 독립심, 근검과 절약정신, 책임감,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제주도에 대한 애착과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 공동체의식, 강한 생활력과 고난극복의지, 그리고 평등의식 등이다.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요청되는 의식으로는 민주의식과 참여의식, 창의성, 진취성, 개방성, 관용적 태도, 합리주의 등이며, 국제관광지로서 강조되어야 할 의식은 친절함의 태도이다.